

외식업 '한파' ... 동네식당 어찌나

소비자 지갑 닫고 AI·구제역 사태로 식자재 가격 급등 '이중고'

2월 새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외식업에 부는 한파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내수침체에 AI 사태로 식자재 부담까지 커졌다. 특히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손님을 뺏긴 동네식당의 허리는 더욱 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16년 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4분기 현재경기지수는 65.04로 3분기(67.51)보다 더 내려갔다.

현재경기지수는 전년동기(100p) 대비 최근 3개월간 외식업계의 경제적 성장 및 위축 정도를 파악해 지수화

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구내식당업(74.23→69.46), 치킨전문점(66.00→60.26), 제과업(69.29→64.90), 분식 및 김밥 전문점(68.53→62.76) 등의 경기 위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 외에 한식(65.13), 일식(72.99), 기타 외국식(90.74) 등 모든 업종이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실 게이트' 등 정치 불확실성에 소비가 감소했고 AI 여파로 인한 계산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현재 여기에 구제역 파동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한식, 일식, 외국식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올해도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길어지고 있데다 특별한 경기회복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출장음식서비스업과 치킨전문점의 경우 향후 3~6개월간의 성장 및 위축 정도를 나타낸 미래경기지수가 각각 59.51, 58.54로 가장 낮았다.

대형음식점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비해 상환이 열악한 골목상권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미 악화된 경영난에 빛으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이 부지기수로 부실

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지역업자 대출액은 464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까지 사업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은 13.4%,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한 가계대출은 14.0% 급증했다.

이에따라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국민 가정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자영업자 생존율이 30%에 불과할 정도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지역별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은 본점 현관 입구에서 'JB 사랑 나눔 헌혈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전북은행 'JB 사랑나눔 헌혈캠페인'

전북은행은 전북은행 본점 현관 입구에서 동절기 헌혈인구 감소에 따라 부족한 혈액수급을 돕기 위해 'JB 사랑 나눔 헌혈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오전 9시부터 전북은행 본점 임직원과 협력사 및 입주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많은 직원들이 헌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전북은행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으로부터 이동헌혈버스를 지원받아 매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동절기에도 확대 시행함으로써 사내 나눔 문화 확산과 헌혈증 기부를 통한 소외계층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은행 노시형 사회공헌부장은 "추위와 방화 등으로 인해 도내 혈액수급이 갈수록 어렵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올해도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전하는 다양한 지역공헌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위해 머리 맞댄다

전북생진원, 17일 시책 설명회·현장 상담 진행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생물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도내 농식품·바이오 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북 농식품·바이오 기업 지원 시책 설명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내 농식품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활동을 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내 기업 지원기관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북도의 농식품 산업 육성 시책 발표와 함께, 농식품

기업을 지원하는 도내 유관기관의 율한해 주요 사업내용과 참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현장 상담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도내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지원사업은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특허·인증·제품고급화, 기술사업화 등 기술지원, 고부가가치 제품개발(R&D), 생산장비·시제품 생산지원, 기업역량강화 교육 및 인력양성, 창업기업 육성, 시설·운영 자금 지원 분야로 이뤄진다.

이번 설명회 및 상담회에는 전북도와 전북중소기업청 뿐만 아니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북본부,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 코트라 전북지원단, 경제통상진흥원 등 도내 농식품기업 지원기관도 다수 참여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가기업에게는 유관기관의 농식품 관련 지원사업을 하나로 정리한 시책자료가 제공된다.

또한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도로 기관별 1:1 상담공간도 마련해 개별기업에 맞춘 좀 더 상세한 전문가의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도내 농식품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있는 우리 농식품 기업들이 전북도의 농식품산업 육성방향에 이해하고, 생물산업진흥원을 포함한 도내 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북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도내 농식품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기업혁신팀 담당자 (063-210-6573)나 홈페이지(www.jif.re.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동네에서 저렴하게 장보자

전주시 - 전북경진원,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전주시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13일부터 19일까지 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과 협약을 통해 '나들가게 동네슈퍼 공동세일전'을 개최한다.

전주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일전은 나들가게에서 가장 판매가 잘되는 라면, 참치, 커피, 세제 등 약 20여개 상품을 20~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지난 10월 전주시 나들가게 동네슈퍼 공동세일전에 참여한 100개 점포의 매출이 미 참여한 점포보다 행사기간 동안 일평균 매출이 11만 원 정도 높고, 공동세일전 전주 대비 공동세일전 기간 동안 32.2% 상승한 수치를 보여 참여 점포의 매출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동세일전은 겨울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50여개 점포가 참여해 나들가게 동네슈퍼 공동세일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세일전에 참여한 나들가게 동네슈퍼 점포에는 홍보물품 제작과 고객시은품을 지원한다. /인재용 기자

모항해나루가족호텔, 전북투어패스 참여

전북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은 도정 핵심과제인 토털관광을 실현하고자 추진중인 '전북투어패스 14개 시군 확대운영'에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특별한인 가맹점으로 참여한다.

전북투어패스는 한 장의 투어패스로 전라북도의 관광지와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며, 922개소 맛집,숙박,공연,체험 등에서 특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종류는 1일권 8,300원, 2일권 1만3,900원, 3일권 1만9,900원 등이다.

모항해나루가족호텔에서는 호텔에 직접 예약하는 고객에 한해 주중 70%, 금요일60%, 토요일 5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단, 연휴 및 성수기는 제외된다.

전북투어패스 특별한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모항해나루가족호텔 홈페이지 또는 프론트(063-580-08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은 2012년 5월 개장한 이후 일몰과 일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서부권 주요거점 체류형 관광숙박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중진공,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는 수출 지원사업 중 기업이 수요가 많고 수출성과가 높은 사업을 수출바우처 방식으로 개편해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및 차이나이웨이 프로그램의 참여기업을 28일까지 모집한다.

정부 3.0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수출바우처)'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및 차이나이웨이 프로그램의 구성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지급받은 바우처 금액 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수출지원 서비

스를 희망하는 수행기관에서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출중소·중견기업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와 함께 공공과 민간의 수출지원서비스 수행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별 신청요건 및 자세한 지원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북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중진공 현장지원단(063-210-6466)으로 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설명회 개최

전북조달청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 정보통신원 교육동 1층 시청각실에서 전북지역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3월 1일에 앞서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